

# 그림 속에 한데 어울린 책과 동심

## 세계 그림책 포스터전 지상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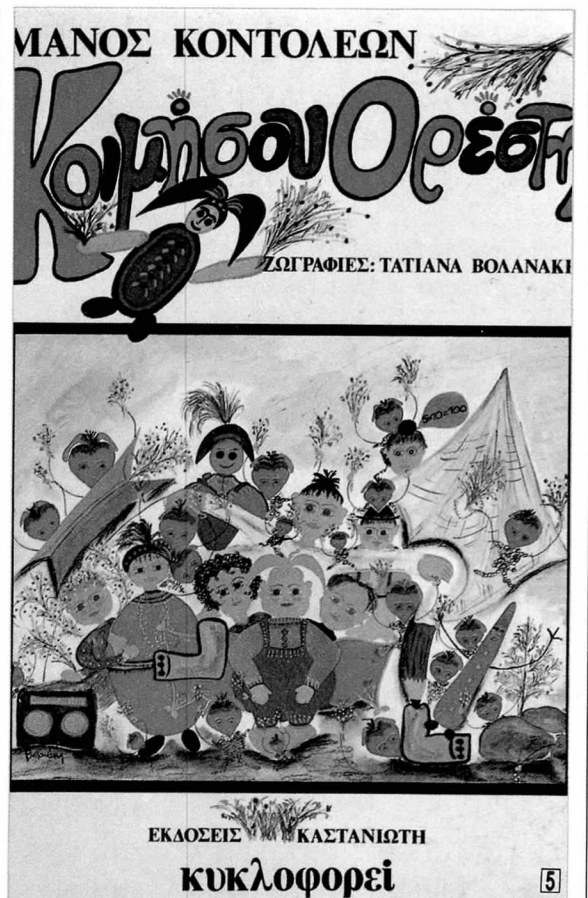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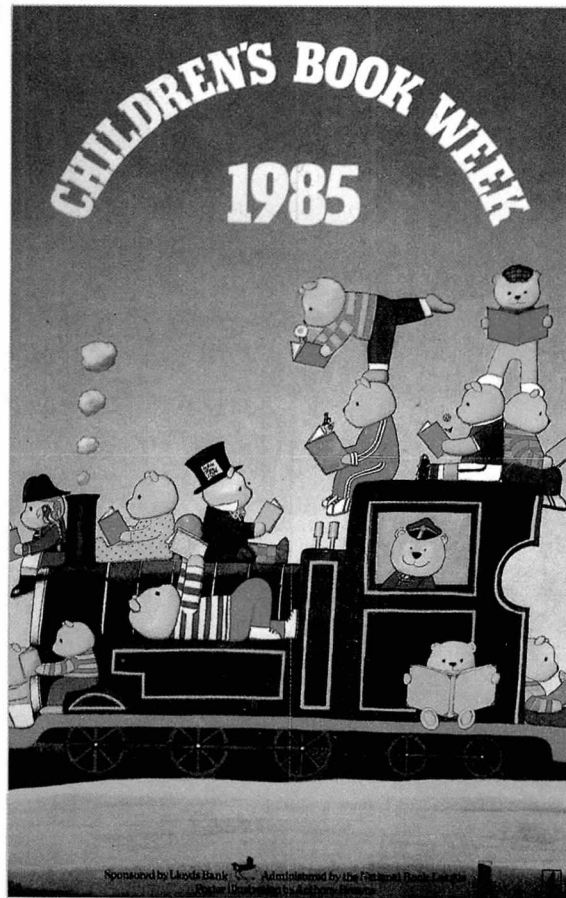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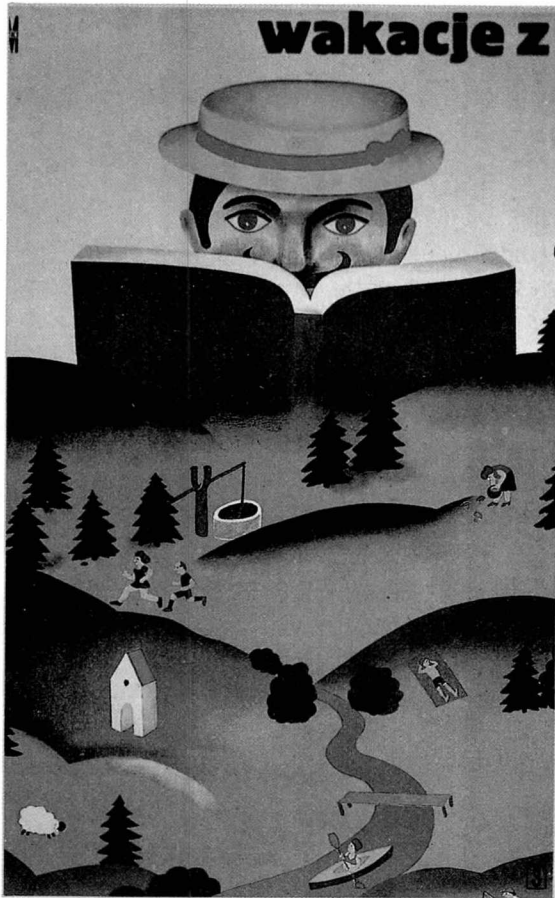
*Lesen, spielen, Leute treffen!*

**Katholische öffentliche Bücherei**



“생활속에 그림책의 세계를!”

제17회 어린이독서주간을 맞아 5월1~10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성대히 펼쳐졌던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잔치마당’에는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국제그림동화원화전’과 함께 ‘세계 그림책 포스터전’이라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국내 처음으로 열렸다. 책이나 독서포스터에 대한 기억이 단조로운 우리에게 이 전시회는 그 종류와 내용의 다양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그림책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신간의 출간과 함께 홍보 포스터를 제작 함께 배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오고 있다. 그래서 전세계 어린이들을 매료시켰던 미키마우스나 피노키오가 생일을 기념하여 포스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갓 태어난 그림동화의 캐릭터가 자신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독자앞에 첫선을 보이기도 한다. 그외에도 각종 국제행사와 독서장려포스터, 출판사의 홍보포스터, 독서캠페인 등이 그림과 문자로 어우러져 무궁무진한 책의 세계로 이끌기도 한다. 1920년대 것부터 최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림책 독서포스터의 걸작 160여점을 한자리에 모은 이 전시회는 책으로도 묶어져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동도서 편집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게 꾸며져 나오기도 했다. 그림책이나 아동도서 행사 홍보포스터는 그 목적을 수행한 후에도 계속되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 마치 유명한 화가의 전람회용 포스터가 행사후 액자에 놓여져 장식되듯 그림책포스터의 가치도 그러하다. 아름다운 그림책 포스터는 단순한 장식물로서만 머물지 않고 생활 속에 머물면서 그림책의 세계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 ① 리로 프롬(독일)작. "책을 읽으며, 놀며, 함께 만나자!" 서독 가톨릭공공도서관 제작.
- ② 프란세스크 빌라 루파스(스페인)작. 1980년 책의 날 홍보포스터. 스페인 문화청 제작.
- ③ 레흐 마이에프스키(폴란드)작. "여름방학을 책과 함께!" 폴란드 아동도서 출판소 제작.
- ④ 앤소니 브라운(영국)작. 어린이도서주간 홍보포스터. 영국도서연맹 제작.
- ⑤ 타치아나 볼라니키(그리스)작. "오레스티스, 안녕히 주무세요!" 신간림책을 홍보하는 포스터.
- ⑥ 토미 데 파울라(미국)작. "책속에 있어요!" 도서주간 홍보포스터. 미국어린이도서협회 제작.
- ⑦ 미츠마사 안노(일본)작. IBBY(국제 아동도서평의회)살립 25주년 기념 포스터.

